

하나됨과 나눔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종려)주일입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 집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 4월 6일은 사랑방공동체학교 개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일(월) 하루 휴업합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다음 주일 오후 2시로 연기합니다.
- 사순절 연속기도는 고난주간에만(11일, 월-16일, 토) 진행합니다.
- 김기환 · 차현주 집사 가정이 이사하였습니다.
의정부시 금오동 파스텔아파트 103동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14 호
2022년 4월 3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부활을 증명하는 방법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무신론자이며 전도유망한 한 젊은 신문기자가 자신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려는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사실이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중심에는 십자가 사건이 자리 잡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로서 증명될 수 없는 일, 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은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신화와 미신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진실을 밝히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것을 매개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다룰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사실을 사실로써 인정하는 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사실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사실처럼 보이는 일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방식대로 사건들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표된 사실이 손쉽게 진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재현할 수 있는지를 따져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조건이나 상황을 맞추었을 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따집니다. 재구성이 가능해야 하며, 다시 관찰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명 불가능한 진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났기 때문에 비교 가능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시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다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만 그 내용이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교와 섬김

그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말의 진실성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거짓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자기희생과 타인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의 윤리의식을 적용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현재 예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최초이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함께 살아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증거는 기독교 공동체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추구해 온 것입니다. 그 형태는 바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꺼이 허용해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며 주위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은 신앙공동체가 형태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종교적 예전을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 매일의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참된 예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2:2>

(이 글은 2017년 선교와 섬김 때 썼던 글을 조금 다듬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요한복음 12장 20-36절

제목 : 영광에 참여하자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이충환 집사

찬송 : 459 379 453 449

관찰]

<문단구분>

20-26 씨가 썩어 새생명이 자란다.

27-36 빛이 있는 동안에 걸을 수 있다.

해석]

1.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2. 예수님께서서 목숨을 잃으심으로 세상에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3. 빛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 걸어야 합니다.

적용]

1.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3. 진리의 빛 안에 걸어갑시다.

성서일기

그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오직 예수그리스도 안에 기초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심리적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다른 모든 공동체와 구별된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와 구원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선사해 주시는 성령께서 이룩하신 것을 성서는 “영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연적 충동과 힘, 인간 정신의 토대로부터 오는 것을 ‘심리적’이라고 부른다.

모든 영적 현실의 기초는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모든 심리적 현실의 기초는 인간 정신의 어둡고도 불투명한 충동과 갈망이다. 영적 공동체의 근거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어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요일1:5)

..... 자신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복된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매일의 양식을 넘어서는 은혜의 약속일 따름이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교적 형제애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형제애에 대한 튼튼하고 확실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행하셨고 또한 행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인식한다. 이 선물은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만든다. 이 선물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모든 경험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경험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

“보라, 형제끼리 한마음으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고!” 이것이 바로 말씀 아래서 함께 사는 삶을 찬양하는 성서의 말씀이다. ‘한마음으로’라는 말을 바르게 해석하면 “형제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산다.”는 말이 된다.

예수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실 수 있다.

“그는 우리의 평화이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며 사귄다.

디트리히 본회퍼, [신도의 공동생활] 중에서.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4 : 14-16 인도자
10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마가복음 11 : 25 인도자

151, 254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마태복음 6 : 14 - 21 설교자
272 공동체

“정결한 삶을 통해 부활을 준비합시다”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20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516(1)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최상득 백성복 / 봉헌위원 : 최신혜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선진술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깊이 경험하기 원하니
정결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정결한 삶을 통해 부활을 준비합시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심 예수님께서서는 산에서 말씀을 전하
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기도문
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후에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
져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 영생에 들
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활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정결의 방법
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입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식입니
다. 금식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셨고 이를 통해 아버지 하나
님의 다스리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버립니다. 우리는 정결한 삶을 통
해 부활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와 금식은 나와 공동체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금식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세상에
가득한 죄 속에 사랑으로 하나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종려주일이 오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잘 준비되는 한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서병욱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주에도 우리 꾸러기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친구를 만나서 좋고, 놀아서 재밌고, 간식도 먹고 정말 즐거운 일이 많은 꾸러기학교는 아이들에게 정말 하늘나라와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런 꾸러기들을 보는 선생님들도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서로의 행복이 되게 해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 같습니다.

푹푹한 봄이 와서 꾸러기들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공동체도 한 바퀴 돌고, 뒷산으로 산책을 가는데 돋보기로 예쁘게 핀 꽃과 새싹들 돋보기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꽃의 향기와 어제는 없었지만 새롭게 보이는 봄의 변화에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계절을 항상 세밀하게 챙기는 꾸러기들이 이때쯤 꼭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냉이캐기입니다. 공동체 밭 곳곳에 숨겨진 냉이를 두 눈을 부릅뜨고 찾습니다. 냉이를 발견하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팔뚝만한 호미를 들어서 냉이를 캐는데 흙은 과감하게 파고, 뿌리나 잎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 캐는데 점점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풀들이 자라고 있어서 뭐가 냉이인지 모를 때는 냄새를 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향기롭고 좋다고 합니다. 거의 한 시간을 돌면서 아이들이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버텨서 냉이를 한 봉지씩 챙겨서 집에 가져갔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냉이 된장국과 전을 만들어먹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는데 아이들이 냉이를 캐서 자랑스럽고, 맛있어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월요일 1, 2교시 드디어 2022년 1학기 학교를 이끌어갈 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학교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원의 2/3 이상 지지를 받거나, 3차 이상 투표가 거듭될 때는 1/2 이상 지지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투표 끝에 회장 이은찬, 총무 장하린, 서기 권민상 어린이가 당선되었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목요일 1교시 새로운 임원이 진행되는 제 1회 자치회의의 첫 안건은?! 요즘 어린이학교의 핫 플레이스인 '트램펄린을 탈 때 지켜야 할 규칙 정하기'였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의 활약으로 어린이학교 생활이 더욱 알차지겠죠!

지난주 주제탐험 시간에는 하경임 선생님께서 어린이들의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실제 양치질 지도를 한 명 한 명 해주셨습니다. 주제탐험 수업을 하는 3~6학년만 알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다음 날 1, 2학년도 시간을 내어 양치질 지도를 따로 받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학교 개학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니 지난 주 월~수요일 사흘만 한 명도 결석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날들이었네요.

어린이들은 요즘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해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도, 전쟁도 모두 얼른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이번 주 멋쟁이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멋쟁이들 여러 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아 평소보다 하루 빠른 목요일 오후에 귀가하였습니다. 예정된 일정들은 못하게 되었지만 코로나의 추가 확산과 재감염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기에 학생들이 꼭 쉬고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시간은 체력, 면역력을 강화하고 내부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식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운동과 다수가 함께 하는 활동을 지양하는 것에 아쉬워하는 멋쟁이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달콤한 휴식 시간을 보낸 듯합니다.

목요일 오전 공동 심화 수업에선 <Z세대, 트렌드>와 관련하여 애니어그램으로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권재만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셔서 내용이 풍성하고 재미도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4월 4일, 월요일은 멋쟁이학교 개교기념일이므로 하루 쉰 월요일 저녁에 등교합니다. 멋쟁이들이 꼭 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박예나 >

게으름과 귀찮음 사이에서

코로나로 인해 강제적이지만 당연시 생각되었던 온라인 예배는 나의 주일 하루를 많이 바꾸어 놓았다.

보통 주일 아침은 다른 날보다는 늦잠을 자지만, 누구보다도 더 서둘러 아침을 먹고, 교회를 향하던 발걸음이 긴장을 늦추고 늦춰서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나도 예배시간에는 늦지 않아 한껏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바뀐 환경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러워 어색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유로움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일하다 보니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친교의 날이 아니라, 십자가 아닌 모니터 앞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쉬는 개념으로 빈둥거리며 지내는 편안함의 나락에 2년을 써버리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몸은 움직이는 것에 대해 격렬하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한껏 게을러지고 마음은 시시때때로 귀찮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었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중증이 아닌지라 침대와 소파 사이를 오가며 이렇게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하며 스스로 위안을 하던 중 갑자기 이리다 게으름과 나태함 사이에서 해매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그래서 바로 집사람에게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겠다고 하고, 주일 오후에는 함께 소풍길 산책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오랜만에 현장예배를 드리니 감격스러움보다는 쑥스러움이 더해, 몇 사람과 눈인사만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와 점심 식사 후 약속대로 산책을 가는데 후들거리는 다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그대로 알려주는 듯했다.

지금도 가끔은 후유증으로 열이 오르고, 잔기침이 나지만 이웃과 함께 미루었던 주변정리를 하면서 마음이 상쾌해짐을 느낀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다.

해 보고 싶은 만큼 게으름과 귀찮음 사이에서 충분히 신앙과 몸을 후들거리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조금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여 신앙도 내 몸도 부활시켜야 하겠다.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골로새서 1:13-20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어제(29일) 제 5차 평화 협상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종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고통과 아픔이 지금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그쳐서 더 이상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사람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개혁자들>

- (1)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 사는 친구들이 화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 (2) 인도네시아 아체의 평화 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는 공간이 되도록
- (3) 제주도 강정에서 해군 기지를 상대로 반전 평화 운동가들을 길러내는 교육과 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 (4)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 뜻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 (5) 양평 샘터 공동체가 평화의 길을 찾는 이들이 머물며 희망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는 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공동체 식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 (2) 수술과 출산 등 건강 상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 (2) 공동체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새롭게 조직된 공동체 위원회들과 총회 준비등, 새롭게 해나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이 지혜를 주시도록

<생활공동체 소식>

산수유와 수선화의 노란 빛으로 가득한 공동체입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낍니다. 무림리의 큰 일교차로 건강에 많이 유의하며 지낸 한 주였음에도 코로나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연달아 확진되면서 여러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서로 위로하며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의 모습에 더욱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